

지역 소식통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 강화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라 관내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김제시·김제경찰서·김제시교육지원청·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약체계를 구성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2월 변호사, 의사,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7명을 재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심의·자문을 구해 안정된 아동보호 추진을 지원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제시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습득과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기로 하고 교육생 및 선도농가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멘토-멘티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수생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하여 영농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선도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여 약 6개월 동안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단계적 기술을 습득하여 농업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다.

현장실습교육은 6개월(월 180시간이내)이며, 연수생은 월 80만원 이내의 교육 훈련비를, 선도농가는 월 40만원 이내의 교수 수당을 지급 받으며 별도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연수생은 농업인 안정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수생 예비귀농인 등 관내 귀농·귀촌인 5명과 선도농가 5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생을 2월 5일까지 김제시농업기술센터(☎063-540-4522)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안전 등 심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가선거구)가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신축년(辛丑年) 새해 회기 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김제시가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제시의회는 개최 첫날 개회식을 마친 뒤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고, 이후 박준배 김제시장의 2021년 김제시 시정설계를 청취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 더불어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면, 임대인 또한 공실 등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라며 "더는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의 아쉬움을 돌아보는 한편, 신축년 새해의 희망을 원동력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선언하며, "민생 중심의 의회, 소중중심의 의회, 건전한 경제와 감시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올해부터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폐건전지, 새건전지로 교환해드려요'

완주군, 교환사업 시행...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완주군이 올해부터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환경오염 예방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의 실천 기회와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을 시행한다.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은 폐건전지와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을 모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새 건전지와 두부마리 화장지를 받을 수 있다.

폐건전지 10개는 새 건전지 1개 또는 화장지 1롤, 종이팩은 200ml 25개, 500ml 12개, 1,000ml 7개당 톨 화장지 1개로 교환해준다. 종이팩은 물로 헹군 후 가져와야 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오염 예방과 중요자원 회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외국인 모범 근로자 3명에 표창장 수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9일 모범 외국인 근로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수상자 3명은 외국인 근로자 중 성실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고 유능하고 우수한 직원으로 라제우(스리랑카, (주)삼정디씨피), 나임예아웅(미얀마, (주)참고을), 예사불(방글라데시, 농업회사법인 (주)한우물)을 기업체에서 추천받아 선발했다.

수상자중 라제우씨는 "이번 수상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열심히 일하면 외국인도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업체 관계자들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김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하고 성실한 동업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함으로써 검증된 생산인력 확보로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표창 수여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김제시에 정착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등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의원별 5분 발언

오상민 의원 "인구 유입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박두기 의원, 인구 성장·정주여건 개선 제안

정형철 의원, 농작물 재해 지원 대책·농가소득 정책 제언

이정자 의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급해야"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오상민 의원, 박두기 의원, 정형철 의원, 이정자 의원은 지난 2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제안에 앞서 예산의 한정성을 강조하며 예산 편성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현재 인구 정책이 출생률 증대를 통한 자연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인구가 계속 전소되는 상황에서 출생률 중심의 정책을 역설

하고 인구 유입 중심의 정책으로의 중점 예산 편성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박두기 의원은 김제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며,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249로 전북도 6개시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9만 4,000여명에서 2020년 12월 현재 8만 2,400여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김제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성장을 위한 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김제시 전원마을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19세대 이하 최소 8천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미미한 효과만 거두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30세대에서 5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반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형철 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장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50년 만에 쌀 생산량이 가장 적었고, 단가에 못 미치는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 실효성 없는 농협의 농작물(벼)보험 등이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이정자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하고 있는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적하며 무상지원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적은 이유를 자신이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서글픈 현실에 대한 낙인이다"며 생리대 보편적 지급을 위한 제언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로컬가공품 온라인에서도 '잘 나가네'

코로나 상황 속 온라인 판매 강화 3개월 간 6900만원 판매고 올려

완주군의 로컬가공품이 온라인 쇼핑 물에 입점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작년 9월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를 꾀했다.

온라인 쇼핑물 '자연을 담은 마켓'(재민물산)에 완주로컬관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아이디어스, 아빠마트, 밥상의 품격 등 5개소에 완주군 로컬가

공품을 입점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현재 49개 업체, 159개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3개월 동안 6900만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인기에 힘입어 군은 '2021년 완주군 로컬가공품 온라인 쇼핑물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에 160여개 제품을 추가 입점시킬 예정이다.

이미 추가적으로 8개 쇼핑물 입점을

확정한 상태로, 이 중 4개소와프집은(정년기업, 소양면), 달새앙(여성기업, 이서면), 지후쌀과자(유아과자 전문기업, 구이면), 이음플라넷(마케팅전문업체, 봉동읍)는 관내기업에서 운영 중인 쇼핑물이다.

군은 로컬 가공품의 온라인 쇼핑물 입점을 꾸준히 지원해 안정적인 판매정착을 돕고, 로컬가공품 통합 물류 배송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